광주 생산·건설경기 반짝 회복… 소비는 부진

주택·공장 등 호조 건설수주액 1조 훌쩍

전년비 5370% ↑… 전남은 17.6% 감소

광주지역 건설업계가 모처럼 웃었다.

지난 8월 지역 건설수주액이 1년 전과 견줘 5369.7% 증가했다.

30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8월 광주·전남지역 산업활동동향'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광주의 건설수주액은 1조 2451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 5369.7% 증가한 수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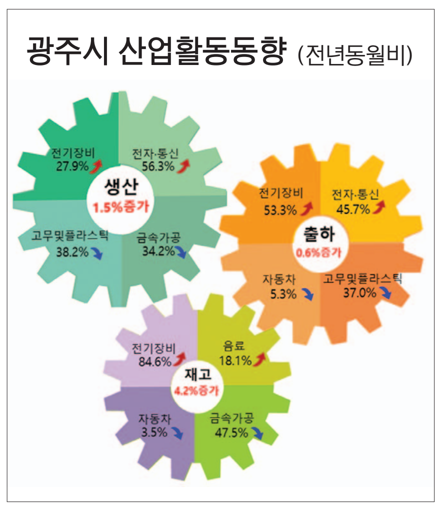
주요 종합건설업체의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 15조9722억원 중 광주의 비중은 7.8%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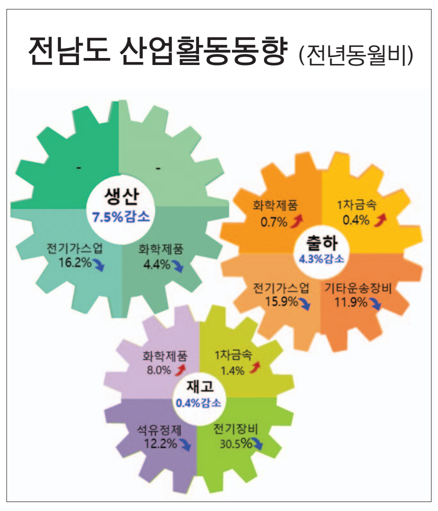
공공부문은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등의 감소로 전년 동월 대비 27.5% 감소했지만 민간부문은 부동산, 기계·장치 등의 증가로 1만6835.4% 늘었다.

건축부문은 주택, 공장·창고 등의 증가로 전년 동월과 비교해 1만3632.2% 늘어난 반면, 토목부문은 철도·궤도 등의 감소로 4.2% 줄었다.

전남의 건설수주동향은 이와 정반대다. 지난달 전남 건설수주액은 1043억원으로 1년 전 대비 17.6% 감소했으며, 전국 비중은 0.7%에 그쳤다.

공공부문은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의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56.1% 증가했고 민간부문은 제1차금속, 화학·섬유 등의 감소로 70.1% 감소했다. 건축부문은 공장·창고, 관공서 등의 감소로 전년 동월 대비 77.3% 줄었고, 토목부문은 발전·송전, 상하수도 등의 증가로 60.7% 늘었다.





한편, 지난달 광주 광공업 생산은 전기장비(27.9%), 전자·통신(56.3%), 담배(13.5%) 등의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1.5% 올랐다.

출하는 0.6%, 재고는 4.2% 각 증가했다.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85.4로 1년 전보다 12.1% 감소했다. 백화점 2.2%, 대형마트 22.1% 각 줄었다.

전남 광공업 생산은 전기·가스업(16.2%), 화학제품(4.4%), 기타운송장비(12.0%) 등 감소 영향으로 1년 전보다 7.5% 떨어졌다.

출하와 재고 역시 각 4.3%, 0.4% 줄었다.

전남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77.1로 전년 동월 대비 20.3%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광양제철소, 협력사와 대기질 개선 상생협약

영산강유역환경청·광양시 협력… 노후시설 교체

광양시는 30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 포스코 광양제철소, 협력업체 4개사와 함께 '광양만권 대·중소기업 지역 대기질 개선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지자체·대기업·중소기업이 협력해 노후 대기방지시설 교체 등 실질적인 대기오염 저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지역 대기질 개선 상생협력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시범사업에는 영산강유역환경청과 광양시를 비롯해 포스코광양제철소, ㈜신진기업, 부국산업㈜, ㈜진평, ㈜엠알씨 등 중소기업 4곳이 참여하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도 협력기관으로 함께한다.

총 사업비는 8억4600만원으로,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4억2300만원을 부담하고 국비와 광양시가 각각 1억6900만원, 참여 중소기업이 8500만원을 분담한다.

협약에 따라 포스코광양제철소는 참여 중소기업의 녹색기업 지정 시 우대와 동반성장지수 평가 반영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중소기업은 이 사업을 통해 시설개선에 필요한 재정 부담을 덜고, 감축된 오염물질을 대기업의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포스코의 선진 환경관리 노하우를 전수받아 자체 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

광주신세계 "추석선물 한과로 마음 전하세요" ㈜광주신세계가 민족대명절 추석을 맞아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지역 특산물 한과를 다양하게 선보인다. 30일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본관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지역 명인이 정성을 담아 만든 '담양한과 예향'과 '창평한과 환벽당' 등 오랜 세월에 걸쳐 추석선물로 각광받아온 한과 선물세트를 판매한다. '담양한과'는 콩다식, 강정, 유과 등 3단으로 구성됐다. '창평한과'는 2단 지함에 유과, 약과, 매작과, 강정, 다식 등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30일 내수 경기 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광주 대인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광주국세청, 대인시장서 추석맞이 장보기

사회복지시설에 위문금품 전달

광주지방국세청(청장 박광종)은 30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내수 경기 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광주 대인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광주국세청 간부와 직원 40여 명은 이날 시장 곳곳을 둘러보며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농산물, 생활용품, 먹거리 등을 구입하고,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또 장보기 행사 직후 아동 양육시설인 광주 동구 용산동 소재 광주영신원을 방문해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광주국세청 관계자는 "현장에 한걸음 가까이 다가가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 상인들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따뜻한 세정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광주경총, 17일 조석준 전 기상청장 초청 금요포럼

10월 날씨·예술·은퇴 후 자산관리 등 주제 특강 진행

광주경영자총협회는 비즈니스 전략과 광주형 비전, 은퇴 후 자산관리 방법 등 다양한 주제로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10월 금요조찬 포럼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10월 17일에는 레인버드지오 조석준 회장이 '기후위기시대의 글로벌 기상기후 비즈니스 전략'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조석준 회장은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와 원장을 역임한 데 이어 국내 최초 기상전문가로 KBS에서 활동했다. 또 제9대 기상청장과 UN산하 세계기상기구 집행이사를 지냈다. '재미있는 날씨 이야기', '기후변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기상이 강해야 진정한 선진국이다' 등 다수의 저서를 발간했다.

24일에는 윤익 광주시립미술관장이 '문화예술로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광주형 비전' 주제로 강연한다. 윤익 관장은 광주국제미술전람회와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총감독을 역임했다.

31일에는 미래에셋투자와 연금센터 김동엽 상무가 '은퇴 후 자산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전달한다. 김동엽 상무는 금융감독원장상과 금융투자협회장상을 수상했고 KBS라디오 '성기영의 경제쇼'와 '통합 뉴스룸 ET'에 출연했다. 저서로는 '돈이 돈을 벌어 준다고', '토비의 주식회사' 등이 있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10월 포럼은 날씨와 방송에 대한 여러 에피소드와 기후변화 등 은퇴 후 자산관리에 중점을 둔 강연을 준비했다"며 "다양한 연금을 활용한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 등 실속과 내실 있는 강연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금요조찬 포럼 참석 및 회원가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회원사업부(062-654-3426)로 문의하면 된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광주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 기업유치 설명회

GICON, 오늘 코엑스… 성장사례 발표·상담부스 운영 등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은 10월 1일 서울 코엑스에서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 2차 기업 유치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 최대 인공지능(AI) 행사인 'AI 페스타 2025'와 연계해 열리며 광주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의 가치와 기회를 알리고 기업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김정태 MYSC 대표의 '광주가 열어가는 문화산업의 미래' 기조 발표를 시작으로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 소개, 스튜디오 기반 제작 인프라 소개, 이전 기업 사례 발표(㈜위즈온센) 등으로 구성된다. 실제 이전 기업의 성장 사례 발표를 통해 참석자들이 광주 이전의 구체적 이점을 보다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행사장에는 지원제도, 지원사업, 창업, 투자조합 등 4개 분야 상담 부스가 운영된다. 세제 혜택, 보조금 지원, 메타버스·스튜디오 지원사업, 창업 컨설팅 등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행사는 신청링크(https://forms.gle/DJxNingzpHMyJufq5)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행사 당일 현장 등록도 가능하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국제 지속가능성·탄소 인증

2030년까지 재생·재활용 소재 비중 40% 목표 추진

금호타이어(대표 정일택)는 전남 곡성공장이 ISCC PLUS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and Carbon Certification, 국제 지속가능성 및 탄소 인증) 인증을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ISCC PLUS는 바이오 및 재활용 원재료를 포함한 대체 원재료의 신뢰성과 추적 가능성을 검증하는 국제 인증이다. 원재료 조달부터 최종 제품 생산·유통까지 전 과정에서의 추적 가능성과 투명성을 검증해 순환 경제 및 탄소 중립 비즈니스 모델을 지원한다.

금호타이어는 지속가능재료 연구개발을 지속 추진하며 2030년까지 40%, 2045년까지 100%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재활용 카본블랙, 폐스틸코드, 폐플라스틱 기반 합성고무, 쌀겨 실리카, 해바라기유 등 지속가능재료를 80% 적용한 타이어 개발에 성공한 바 있다.

정일택 금호타이어 대표는 "이번 ISCC PLUS 인증은 금호타이어의 지속가능성 여정에서 중요한 계기"라며 "앞으로도 비즈니스 전반에 걸쳐 순환경제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지난 8월 과학 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SBTi)로부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승인받으며 탄소 감축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기아, 무분규 임금협상 타결

기본급 10만원↑·성과금 350%

기아 노사가 5년 연속 무분규로 임금협상을 타결했다.

기아 노동조합은 전체 조합원 2만5812명을 대상으로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벌인 결과, 투표자 2만1356명 중 과반인 73.1%(1만5601명)가 찬성해 가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조인식은 10월 1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기아 노사는 지난 25일 오토랜드 광명에서 열린 7차 본교섭에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에는 기본급을 호봉승급분 포함 10만원 인상하고, 경영성과금 350% 및 생산·판매 목표 달성 격려금 100%와 108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월드카 어워드' 2년 연속 선정 기념 격려금 5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 단체교섭 타결 격려금으로 무상주 53주도 받는다.

이 밖에도 기아 노사는 500명의 엔지니어(생산직) 직군을 내년 연말까지 채용하기로 했다. 2년 연속 대규모 신규 채용이다.

기아 노사는 국내 오토랜드를 미래 자동차 산업을 주도하는 핵심 거점으로 전환해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안전한 일터 구축을 통해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종업원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는 '미래 변화 대응을 위한 노사 공동 특별선언'도 체결했다.

이번 잠정 합의안 가결에 따라 기아는 2021년 이후 5년 연속 무분규로 임단협을 타결했다. 다만 올해는 노조가 지난해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면서 협상 과정이 난항을 겪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호남권 국도 456만대 이동 예상

익산청, 추석 특별교통대책 시행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10월 2일부터 12일까지를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도로이용자들이 호남권 국도를 이용해 안전하고 편안하게 귀성·귀경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익산청은 이번 대책기간 동안 호남권 국도를 이용하는 차량대수가 전년 대비 약 3.7% 증가한 총 456만대(일 평균 약 41만대)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중 추석 당일인 10월 6일에 가장 많은 52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예측했다.

교통대책은 사전대비 철저,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교통안전 캠페인, 빈틈없는 재난대비 강화 등 4대 추진과제를 중점으로 시행된다.

익산청 도로교통정보센터를 통한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국토사무소 비상근무반을 편성해 상황 발생시 신속 대응한다.

추석 연휴 전 주요국도 및 공사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 도로정비를 사전에 완료하고 도로이용자들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호남권 국도 쉼터(30개소)를 청결하게 관리해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호남권 주요 교통혼잡구간에 '도로전광표지(VMS)' 등을 통해 교통정체시 우회도로를 안내하며 카카오톡 알림서비스로 실시간 교통정보를 운전자에게 제공, 교통량 분산을 유도한다.

교통사고 예방과 올바른 교통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주요 이동예상구간 및 차량집중시설(터미널, 휴게소 등)에서 안전운전 캠페인도 병행한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